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14일부터 이틀간 군산명화학교 및 군산특수교육

전남교육청,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 확산

들이 꿈과 끼를 찾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행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군산명화학교를 방문하고, 1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3개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안착과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청암대학교-순천승평로타리클럽 업무협약·로타랙트클럽 창립식 개최

순천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와 순천승평로타리클럽은 최근 청암대학교 총장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재학생들이 주축이 된 ‘로타랙트클럽’ 창립출발식을 건강복지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하였다.

로타리란 명칭은 회원 각자의 사무실에서 번갈아 돌아가며 모임을 가진 것에서 유래하였는데, 1905년 청년번호사였던 폴 해리스와 세 사람의 친구들이 첫 모임을 가진 것이 출발점이다.

한국로타리는 1961년 7월 1일자로 국제로타리로부터 한국 전역의 로타리클럽을 단일지구로 승인하여 시작되었으며, 1996년 7월 1일에 전남남부 및 남부지역을 3610지구로 분구하여 3개시(순천, 여수, 광안)와 10개군(곡성, 구례, 보성, 고흥, 장흥, 강진, 영암, 해남, 완도, 진도)을 포함하여 출발하였다.

업무협약식은 청암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서형원 총장과 순천승평로타리클럽 이동준 회장이 각각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건강복지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로타랙트클럽 창립출발식은 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 36명의 재학생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가운데, 윤형중 로타랙트 위원

장, 국제로타리 3610지구 김도형총재 등 로타리클럽 관계자와 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 및 사회복지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형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의 무관심과 방관,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봉사과 희생은 점점 퇴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번 순천승평로타리클럽과 청암대학교의 업무협약 및 로타랙트클럽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 순천승평로타리클럽의 이동준 회장은 “오늘 청암대학교의 로타랙트 클럽이 모두의 기대와 축복으로 창립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향후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협력하고, 클럽과 청암대학교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본 클럽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회복지과의 노고는 학생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정의의 편에서 사회복지사로 헌신하겠다는 예비사회복지사의 입장을 고려할 때, 로타랙트클럽의 목적은 더욱 더 우리들의 가슴에 뜨겁게 와 닿는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장성 문향고 3학년 이채빈양, 제14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장성 문향고등학교(교장 고평진)는 지난 12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14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에서 3학년 이채빈 양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올해로 14회째 열리고 있는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은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으로 처음 시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에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 1명과 단체 1개,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개인 5명 및 동아리 5개 등 총 12명(개)을 발굴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시상하는 대회이다.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들은 청소년분야 전문가로 청소년푸른성장대상위원회(위원장 최영희)를 구성하여 예비심사와 본심사,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정책제안발표대회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등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양은 ‘맞춤형 자기주도적 학습과 동아리활동 등 학생 자치를 중시하는 학교 교육 풍토와 체계적인 진로 진학 시스템 하에서 자기 진로와 연계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향고 교장인 교장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과 다양성을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이양의 수상을 계기로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 제고에 더욱 가속력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원이 주어진다.

광주교대광주부설초, 찾아가는 티볼교실 운영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교장 최영순)가 12일 한국 야구 위원회(이하 KBO)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하는 2018 찾아가는 티볼 교실을 5학년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8 찾아가는 티볼교실

광주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소 야구에 관심이 많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토요일초클럽 종목으로 티볼부를 운영해 학생들이 꾸준하게 티볼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티볼 활동은 기본 타격 방법 및 수비 대형과 수비 진술 이해 활동이 주요 활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이자 기아

타이거즈 감독을 역임했던 김성한 감독이 티볼 타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지도했다.

광주부설초 최영순 교장은 “찾아가는 티볼교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친구들과 존중하고 협력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전남도교육청, 오늘 학생인권 토론회마당 개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8. 학생인권 토론회마당을 17일 전남도도립도서관을 시작으로 전남의 세 권역에서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인권의식 함양과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실천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소통하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 한마당’은 학교현장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가상으로 꾸민 짧은

연극으로 문을 연다. 이어 인권 전문가,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고 방청객들과 인권에 대한 관심사 및 학교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인권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학생인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도교육청 학생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쌓기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훈) Wee센터는 지난 12일 집단 상담실에서 샘-품 지원단 22명을 대상으로 1년 활동을 정리하는 마무리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순천 샘-품 지원단은 교사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1:1 결연을 맺어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관내 중, 고 멘토 교사 8명, 멘티 학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길훈 교육장은 “이번 마무리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좋은 시간



을 함께 공유하여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업중단 등 위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천=황경석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